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 연구

임현주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2009) 2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영아 1,863명과 그의 어머니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가 사용되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관련있는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용되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적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규직 어머니의 자녀가 전업모의 자녀보다 활동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정규직 어머니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점수가 전업모의 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는 반응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취업유형에 있어서 정규직이 안정된 심리상태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창출시 고려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방식, 취업유형

1)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I. 서론

가정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자녀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체계 중 하나이다(신현주·전귀연, 2008). 현대 가족의 기능이 과거의 대가족제도에서 수행된 기능과 비교하여 축소되고는 있으나, 생애초기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에서 이루어진 경험은 성장 후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김민선·김진선, 2010)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가 밀접하고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첫 대상은 어머니이다(신선희·김영희, 2008). 또한,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김민정·도현심·신나나·최미경, 2013),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가 갖는 의무감은 크다. 시대가 변하고는 있지만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책임진다는 전통적 사고는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임순화·박선희, 2010).

여성이 결혼 후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를 본인이 직접 키울 것인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대리 양육자에게 양육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대리양육자에게 맡길 경우 취업모는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Belsky, 1984). 또한 직장생활을 계속 하면서 퇴근 후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에 대해 어머니는 스스로 생각할 때 온전한 양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과 갈등을 겪으며 직장을 그만 두기도 한다. 그렇다고 집안일과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전업모라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일 대신 가사를 택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다. 또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양육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집안일과 양육이 지니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여기기도 한다(Oakley, 1990). 즉, 어머니가 처한 여러 환경과 취업유형에 따라 양육의 과정과 심리특성은 달리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이들 간 기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기질은 영아기부터 시작되어 유아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소유하는 행동특성의 일정한 조합으로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으로부터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Buss & Plomin, 1975). 영아의 기질을 관심 있게 보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아의 기질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력을 미침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Eisenberg, Fabes, Karbon et al.(1996)의 연구에서 기질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친사회성이 낮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다고 했다. 우수경(2002)의 연구에서도 기질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설명력

을 나타낸다고 했다. 권연희·나종혜(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아의 기질적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비취업모의 자녀는 정서성이 높았으며, 취업모의 자녀는 활동적 기질이 높았다.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연구한 Hempill과 Sanson(2000)은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와 양육방식과 관련있음을 밝혔다. 즉,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환경·심리적 특성은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장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환경적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영아의 기질적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심리특성과 양육특성과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어머니의 심리와 양육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이 어머니의 심리에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신숙희(2003)의 연구와 취업모는 자아인식에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강기정·박혜성·계선자(200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심리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심리특성에 해당하는 우울,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의 심리특성으로 선정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심리특성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들 변인이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수행 가능성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신념으로 문제상황 극복과 관련이 있다(Bandura, 1977). 서소정(2004)은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효능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3)도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효능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취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한유미(2003)의 연구도 있다. 이렇듯 상반되는 연구가 있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알 수 있으며, 환경을 선택하고 경험하며 해석하는 가운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함께 긍정적 심리에 해당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관련된 개념으로(Rosenberg, 1979),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Pope, MaChales, & Craighead, 1988).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가정의 소득이 높으면 어머니의 긍정적 자아인식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복희·박아청·이경혜(2010)의 연구가 있었다.

우울한 사람은 인지적 왜곡을 경험하고 스스로에 대해 과대 혹은 과소평가를 하거나 감정표현이 부족하게 된다(Hammen, 1992).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며, 양육에 있어서의 반응도가 낮았다(문경주·오경자, 1995).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 지수를 연구한 Hashimi, Khurshid와 Hassan(2007)은 비취업모의 우울지수가 취업모보다 높다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인데(abidin, 1992), 일상적 스트레스에 더하여 부담감과 부정적 스트레스를 포함한다(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자녀에 대한 거부적 양육행동이 나타나고(김미숙, 2005)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현미·도현심, 2004), 양육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했는데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취업모의 경우 직업인의 역할에 가사와 육아가 더해지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 여겨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연구가 활발하다(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 2010).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임순화·박선희(2010)는 어머니의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낮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세밀히 살펴 보고자 한다.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얼마나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요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변인이다. 임현주·이대균(2012)은 양육방식에 있어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도 전업모에 비해 양육실제에 있어 한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에서 자녀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과 양육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 기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안영희·김연화·한세영, 2008),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심리적 특성은 의사결정과 행동실행에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은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달라짐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양육역할 수행의 기본이 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이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들은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를 취업모와 전업모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상황이어서(임현주, 2013), 취업모를 단일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보다는 취업모를 직업의 안정성에 따라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연구대상 가운데 취업모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로 나눈 후 이들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전업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특성, 양육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심리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안정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긍정적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영아 기질(정서성, 활동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어머니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양육방식(온정성, 민감성)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8개월 미만의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생아부터 13년간 종단연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차년도(2009)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중 영아와 어머니는 각각 1,904명이다. 이 중 어머니의 직업을 학업중, 무급가족봉사자로 표시하거나 결측치, 무응답인 사례 41쌍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전업모,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 어머니와 영아 1,863쌍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다음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변인	구분	N	%	
영아	성	남아	962	50.5	
		여아	942	49.5	
	월령	12개월 미만	124	6.6	
		13개월	447	23.5	
		14개월	701	36.8	
		15개월	471	24.7	
16개월~18개월		161	8.4		
어머니	나이	25세 이하	55	2.9	
		26~30세	577	30.4	
		31~35세	938	49.3	
		36세 이상	334	17.4	
	학력	고졸	579	30.4	
		2년제	472	24.8	
		4년제	747	39.2	
		대학원	94	4.9	
		무응답	12	0.6	
	취업유형	전업모	1,287	67.59	
		취업모	정규직	471	24.74
			비정규직	63	3.31
			고용주/자영업자	42	2.21
			무급가족종사자	15	0.79
			무응답	2	0.10
학업중		7	0.37		
결측치		17	0.89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도구는 아동패널 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수정한 아동패널 도구이다. EAS의 하위변인은 정서성의 5개 문항, 활동성의 5개 문항, 사회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정서적 반응의 정도이며, 활동성은 생활에서 보여지

는 행동의 정도를 말하며,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18개월 미만의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1, 2차 연구도구에서는 기질에서 사회성 항목은 제외되었다.

정서성 기질의 질문 내용은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등의 부정적 정서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였다. 활동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의 낮은 활동성을 보여주는 문항과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의 높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즉,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기질 중 정서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57$, 기질 중 활동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84$ 이다.

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하위변인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SID-CDS II(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Mainieri, 2006)을 수정한 아동패널도구이다. 그 내용은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등의 4개 문항인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낸다. 역코딩 변수 변환하여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17$ 이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수정한 아동패널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등의 긍정적 진술에 해당되는 5개의 문항과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등의 부정적으로 진술된 5개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 5개는 역코딩하여 전체 변수 변환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4$ 이었다.

우울은 Kessler, Andrew, Cople et al. (2002)이 개발한 간편형 우울 척도(K6)를 수정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며 내용은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 ‘전혀 안느낌’은 1점으로, ‘항상 느낌’은 5점으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의 신뢰도 Cronbach's α =.914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 Thornberg의 Maternal Guild Scale(MGS)를 기초로 하여 김기현·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아동패널에서 수정한 것이다. 내용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등이다. 5점 척도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α =.840이었다.

다. 어머니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하위변인은 반응성과 온정성이다.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양육방식은 부모가 행하는 양육실제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양육방식에 대한 검사도구는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et al. (1996)이 개발한 양육스타일 (PSQ: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을 아동패널에서 수정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의 반응성을 알아보는 문항 3개와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등의 온정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항 3개로 총 6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방식에 있어서 온정성과 반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육방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0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테이타 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전업모,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 각 집단에 따른 데이터 수에 SPSS를 이용하여 취업유형 집단간 가중치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을 알아보

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은 상관관계가 있는 종속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여러 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변량분산분석은 여러 종속변인을 한꺼번에 분석하기 때문에 1종 오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성태제, 2007), 본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한 적합한 분석방법이었다.

이러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수행하기전 기본 가정이 충족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종속 변인 간 관계가 선형적이었으며, 종속변인들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다. 변량-공변량 분산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Box's M*값을 확인하였으며, 다변량 검증을 위해 *Wilk's λ*를 알아보았다. 또한 개체간 효과검증을 위해 *F*값, 독립변인의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 에타제곱(η^2)을 살폈다. 이러한 과정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취업유형 빈도분석

어머니의 취업유형을 빈도분석하여 그 결과를 아래의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어머니의 취업유형의 빈도와 가중치

변인	하위변인	원데이터(N=1,904)		가중치 보정후(N=2,604)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어머니의 취업유형	전업모	1,287	67.59	1,305	50.11
	정규직	471	24.74	942	36.18
	비정규직	63	3.31	189	7.26
	고용주/자영업자	42	2.21	168	6.45
	무급가족종사자	15	0.79		
	무응답	2	0.10		
	학업중	7	0.37		
	결측치	17	0.89		
합 계		1,904	100	2,604	100

본 아동패널의 어머니는 총 1,904명이다. 이들을 취업유형에 따라 빈도분석한 결과 전업모는 1,287명(67.59%), 정규직은 471명(24.74%), 비정규직은 63명(3.31%), 고용주/자영업자는 42명(2.21%), 무급가족종사자는 15명(0.79%), 무응답은 2명(0.10%), 어머니가 학업중인 경우는 7명(0.37%), 결측치는 17명(0.89%)이었다.

취업모중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15명(0.79%), 무응답 2명(0.10%), 학업중 7명(0.37%)과 결측치 17명(0.89%)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어머니 취업유형의 따른 기질, 어머니의 심리특성, 양육방식을 분석할 때 해당되는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모,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로 그 대상은 1,863명이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집단간 데이터의 수에 많은 차이를 보여 이에 통계적 가중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전업모는 1,305명(50.11%), 정규직은 942명(36.18%), 비정규직은 189명(7.26%), 고용주/자영업자는 168명(6.45%)이다.

2.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자녀 기질 차이분석

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기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자녀 기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아래의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	N	평균	표준편차
기질(정서성)	전업모	1,305	3.28	.63
	정규직	942	3.31	.61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3.29	.57
	고용주/자영업자	168	3.28	.64
	합계	2,604	3.29	.62
기질(활동성)	전업모	1,305	3.88	.58
	정규직	942	4.00	.56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3.90	.52
	고용주/자영업자	168	4.06	.62
	합계	3,903	3.93	.58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질(정서성)에서는 정규직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가 3.31점($SD=.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질(활동성)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 자녀가 4.06점($SD=.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분산의 동질성 검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하였다. 집단간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Box's M*값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분산 동질성 검증

($N=2,604$)

<i>Box's M</i>	13.990
<i>F</i>	1.550
자유도1	9.000
자유도2	2123696.6
유의확률	.124

우선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전업모,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의 네 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Box's M*값을 나타내었다. 유의확률은 .124로 나타나 본 가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본 연구의 영가설(H_0)을 기각하지 않아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다변량 검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다변량 검증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다변량검증

($N=2,604$)

	효과	값	<i>F</i>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기질	Pillai의 트레이스	.014	6.141**	6	5200
	Wilks의 람다	.986	6.159**	6	5198
	Hotelling의 트레이스	.014	6.177***	6	5196
	Roy의 최대근	.014	12.130***	3	2600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 영가설(H_0)은 “여러 종속변인이 선형적으로 결합하여 이론 평균값의 vectors가 어머니의 취업유형 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들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의 4가지 통계량을 검증할 때 영가설이 모두 기각되어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에 차이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개체간 효과 검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보여진 종속변인 기질의 차이가 정서성과 활동성중 어느 변인에 주로 기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체간 효과검증이 필요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정서성, 활동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개체간 효과 검증(MANOVA)

변량원	종속변수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 제곱	Scheffe
어머니의 취업유형	기질(정서성)	.598	3	.119	.519	.001	
	기질(활동성)	11.449	3	3.816	11.682***	.013	b, d>a

주: a=전업모. b=정규직. d=고용주/자영업자
*** $p < .001$.

<표 6>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변인에서 유의하게 나온 것은 영아의 기질중 활동성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업모, 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 집단에서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하였다. 사후 검증결과 정규직과 고용주/자영업자 어머니의 자녀가 전업모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심리특성 차이분석

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어머니 심리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심리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아래의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심리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인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	전업모	1,305	3.66	.71
	정규직	942	3.78	.69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3.66	.60
	고용주/자영업자	168	3.73	.67
	합계	2,604	3.71	.69
자아존중감	전업모	1,305	3.46	.41
	정규직	942	3.58	.39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3.57	.38
	고용주/자영업자	168	3.66	.48
	합계	2,604	3.52	.41
우울	전업모	1,305	1.95	.71
	정규직	942	1.82	.68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1.95	.54
	고용주/자영업자	168	2.06	.71
	합계	2,604	1.91	.69
양육 스트레스	전업모	1,305	2.77	.64
	정규직	942	2.67	.62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2.58	.53
	고용주/자영업자	168	2.58	.62
	합계	2,604	2.70	.63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정규직 어머니의 점수가 3.78점($SD=.69$)으로 가장 높았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고용주/자영업자가 가장 높았는데 각각 3.66점($SD=.48$), 2.06점($SD=.71$)이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가 가장 높았는데 평균과 표준편차는 2.77점($SD=.64$)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 분산의 동질성 검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로자 다변량분산분석을 하였다. 집단간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Box's M*값을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분산 동질성 검증

(N=2,604)

<i>Box's M</i>	86.998
<i>F</i>	2.882
자유도1	30.000
자유도2	1118940.7
유의확률	.000

본 연구의 영가설(H_0)은 ‘전업모,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의 네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이다.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확률이 .000이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본 연구의 영가설(H_0)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변량분산분석이 아닌 각각의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를 일원배치 분산분석하였다.

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심리적 특성 분산분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분산분석 검증결과를 아래의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9〉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 일원배치 분산분석

종속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사후검증
자기효능감	진단 간	8.789	3	2.930	6.272***	b>a
	집단 내	1214.456	2600	.469		
	전 체	1223.236	2603			
자아존중감	진단 간	11.342	3	3.781	23.118***	b,c,d>a
	집단 내	425.191	2600	.161		
	전 체	436.532	2603			
우울	진단 간	14.782	3	4.927	10.430***	a>d>b
	집단 내	1228.323	2600	.472		
	전 체	1243.105	2603			
양육스트레스	진단 간	11.596	3	3.865	9.884***	a>b,c,d
	집단 내	1016.832	2600	.391		
	전 체	1028.429	2603			

주: a=전업모. b=정규직. c=비정규직. d=고용주/자영업자
*** $p < .001$.

<표 9>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F*값은 각각 6.272, 23.118, 10.430, 8.884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심리적 특성은 어머니의 취업유형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각각의 종속변인중 구체적으로 어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전업모보다 정규직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가 전업모보다 높았다. 우울은 전업모,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 어머니보다 높았다.

4.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 차이분석

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자녀의 기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아래의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	<i>N</i>	평균	표준편차
양육방식 (반응성)	전업모	1,305	3.94	.53
	정규직	942	3.83	.59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3.78	.49
	고용주/자영업자	168	3.80	.61
	합계	2,604	3.88	.55
양육방식 (온정성)	전업모	1,305	3.88	.55
	정규직	942	3.91	.53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189	3.90	.41
	고용주/자영업자	168	3.90	.55
	합계	2,604	3.90	.54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방식(반응성)에서는 전업모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가 3.94점(*SD*=.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방식(온정성)에서는 정규직 어머니의 점수가 3.91점(*SD*=.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분산의 동질성 검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다변량 분산분석을 하였다. 집단간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Box's M*값을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분산 동질성 검증

(N=2,604)

<i>Box's M</i>	70.133
<i>F</i>	7.769
자유도1	9.000
자유도2	2123696.610
유의확률	.000

우선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네 집단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Box's M*값을 나타내었다. 동질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000로 나타났다. 본 가설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본 연구의 영가설(H_0)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변량분산분석이 아닌 각각의 종속변인 양육방식(반응성), 양육방식(온정성)을 일원배치 분산분석하였다.

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 분산분석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 분산분석 검증결과를 아래의 <표 12>에 나타내었다.

〈표 12〉 변량원(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 일원배치 분산분석

종속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사후검증
양육방식 (반응성)	집단 간	9.778	3	3.259	10.581***	a>b,c,d
	집단 내	800.931	2600	.308		
	전 체	810.709	2603			
양육방식 (온정성)	집단 간	.513	3	.171	.596	
	집단 내	746.060	2600	.282		
	전 체	746.572	2603			

주: a=전업모, b=정규직, c=비정규직, d=고용주/자영업자

*** $p < .001$.

분산분석결과 양육방식(반응성)만이 유의하였는데 F 값은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10.581이었다. 즉, 전업모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 어머니보다 반응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방식(온정성)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방식(반응성, 온정성)의 차이를 밝히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영아의 기질을 살펴본 결과 정서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활동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정규직 어머니 자녀가 전업모의 자녀보다 높은 활동성 점수를 나타내었다.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0)도 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여 어머니의 취업상황에 따른 영아의 기질의 차이를 밝혔는데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높은 활동성의 기질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전업모,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로 세분화하여 영아의 기질적 차이를 살핀 결과 정규직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전업모의 자녀보다 활동성의 기질이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며 높게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취업모와 전업모간 나타난 자녀의 활동적 기질의 차이는 취업모 중에서도 정규직과 전업모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을 살핀 결과 정규직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활동적 기질이 높게 나타났다. 2008 아동패널을 분석한 옥경희와 천희영(2010)의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에서 활동성은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활동성이 자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아의 활동성을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러한 자녀의 활동적 기질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연구도 있다. 안영희·김연화·한세영(2011)은 자녀가 활동적이면 부단히 움직이는 자녀를 쫓아다니게 되어 어머니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기질이 활동적인 영아를 둔 어머니

는 양육의 과정에서 신체적 어려움이 더할 것이라 했다. 이에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살핀 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핀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정규직 어머니의 점수가 전업모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인데(Bandura, 1997), 정규직 어머니는 직장에서의 역할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증대될 것이다. 최형성(2005)은 긍정적 심리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주위로부터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와 최형성(2005)의 연구를 종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정규직 어머니에 비해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전업모는 그 누구보다 남편의 양육참여나 주변인으로부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취업모와 전업모가 달리 나타난 남편의 양육지원을 연구한 권연희·나종혜(2010)도 전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남편의 양육지원을 덜 받는다면서 이들 전업모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업모는 정규직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기효능감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전업모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의 과정에서 남편과 사회의 지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가 전업모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담고 있다(Pope, MaChales, & Craighead, 1988). 전업모는 취업의 형태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 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고 있어 전업모는 자신의 일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소득활동여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김혜라(2010)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정윤주(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 양육을 이끌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작용을 생각할 때 전업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은 전업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의 순서였다. 본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족의 소득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관계있음을 밝힌 Johnson, Cohen, Kasen와 Brook(2006)의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사점은 크다. 직업의 정년 보장이 된 정규직의 어머니는 계획대로 가계의 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도 덜할 것이다. 이처럼 전업모는 정규직 어머니보다 우울이라는 부정적 심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가 정규직 어머니보다 높았다. 사회적 인식이 전업모에게는 양육의 과정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전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인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임현주, 2013). 이에 전업모가 양육의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임현주·이대균(2012)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취업모가 높았으며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에게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심리특성을 살펴본 권미경(2010)의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취업모가 높았으며, 우울은 전업모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비교분석한 Hashmi, Khurshid와 Hassan(2007)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힘으로써 국외 연구에서도 국내 연구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해 볼 때 긍정적 심리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정규직 어머니가 전업모보다 높았으며,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를 직업에 따라 구분하여 세밀한 연구를 할 때 전업모와 취업모로 분류하기 보다는 취업모 중에서도 취업모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정규직 취업모만을 선택하여 살피는 것이 정확한 연구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살핀 결과 반응성과 온정성에서 보여진 각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반응성은 전업모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자보다 높았으나, 온정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즉,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서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나,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대하는 반응성의 태도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전업모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응성과 두 번째 논의에서 전업모에게서 높게 나타난 양육스트레스를 종합한다면 전업모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높은 반응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도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서 정규직이 통계적 유의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야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 취업모군에 해당되었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취업모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제상황이 불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채용이 가능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취업여부로 구분할 때에는 취업의 형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로기간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급여액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의 긍정적 심리 형성을 위해서는 직업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취업모의 긍정적 심리 형성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의 증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급여나 노동기간의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으로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 심리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고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전업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영아의 기질,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동패널에서의 방대한 사례수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유형에 있어서 전업모와 정규직 외에서 그 사례에 있어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이나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져 시사점을 밝힌 것은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에 해당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나 가계의 소득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처럼 취업의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선행연구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취업유형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 취업유무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한 점은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다변량 검증과정에서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각 집단 간수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본 패널데이터가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라 층화표집 한 것이 아니고 분만건수에 따른 전국 6개 권역별 층화표집하였기 때문에 이렇듯 각 집단간 데이터의 수가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집단의 데이터 수를 가중치 처리하여 통계적 보정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각 집단의 수를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영아가 성장하여 누적될 패널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아동의 또래집단간 상호작용이나 사회성 발달에 관한 내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정서성의 기질을 가진 경우 또래 집단 간 활동에서 혼자놀이를 즐긴다는 Rubin, Bukowski와 Parker(2006)의 연구,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적 차이가 사회성(안라리, 2005; 최미숙, 2007)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수경(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러한 기질적 차이가 또래집단 간 친사회성에 미치는 연구, 영아의 발달이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특성, 양육방식의 차이를 살폈는데 이들 변인사이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한 후속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영아의 활동적 기질이 어머니의 심리특성과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기정·박혜성·계선자(2005). 맞벌이 가족 남편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2), 5-25.
- 권미경(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제1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463-483.
- 권연희·나종혜(2010). 영아의 행동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 환경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295-311.
-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3).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와 학령기 자녀를 어머니를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김진선(2010).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여부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2), 29038.
- 김민정·도현심·신나나·최미경(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 김혜라(2010). 어머니 특성과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1회

- 아동패널 학술대회, 263-278.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문경주·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0).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 내 역할지각을 중심으로. 제 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199-220.
- 신선희·차윤희·김영희(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535-545.
- 신숙희(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주·전귀연(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195-227.
- 안영희·김연화·한세영(200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1-14.
- 우수경(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관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경희·천희영 (2010). 영아 어머니 우울의 예측변인 분석: 어머니의 부모됨 및 양육관련 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제 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59-82.
- 육아정책연구소(2011).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도구 프로파일.
- 이복희·박아청·이경혜(2010).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 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03-120.
- 임순화·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임현주·이대균(2012).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

-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 임현주(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윤주(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최미숙(2007). 유아의 기질에 따른 정보처리 유형과 또래 유능성 분석. 유아교육연구, 27(2), 99-118.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한유미(2003).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 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122*-12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M. G. Pecheux.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ss, K. A.,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y, B. C., Wosinsky, M., Polazzi, L., Carlo, G., & Juhnke, C. (1996). The relations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974-992.
- Hashmi, H. A., Khurshid, L., & Hassan, I. (2007). Marit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woman. *Internet Journal of Medical Update, 2*(1), 1-11.
- Hammen, C. L.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emphill, S., & Sanson, A. (2000).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n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16th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Beijing, China, July.
- Johnson, J. C., Cohen, P., Kasen, S., & Brook, J. S. (2006). Maternal psychiatric disorders, parenting, and maternal behavior in home during the child rearing year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15*(1), 97-114.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MORMAND, S. -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 Oakley, A. (1990). 가사노동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Housework*). (문숙재 옮김). 서울: 신광출판사. (원전은 1975에 출간).
- Pope, A., MaChales, S., & Craighead, W.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York: Pergamon Pres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Wiley.

·논문접수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2월 18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교신저자: 임현주,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이메일 misungkid@hanmail.net

Abstract

The Differences of Infant's Temperament,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Mothers' Parenting Style as a Function of Types of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Hyun Ju Lim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infant's temperament,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arenting style as a function of types of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The data of 1,904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extracted from the 2n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09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analysis method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OVA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activity level(temperament) of infant's of full-time employed mothers was higher than ones of homemaker mothers. Second, the self-efficacy of full-time employed mothers was highest, the self-esteem of full-time employed mothers, owner/self-employed mothers, and mothers in temporary employment was higher than ones of homemaker moth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parenting stress of the homemaker mothers were the highest.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activity level (one of the mothers' parenting styles) as a function of types of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full-time mothers has had a stable psychological state.

Key words: infant's temperament,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mothers' parenting style, mothers' career type